

목장교회 나눔지

2022. 8. 7. 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온라인모임 3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요즘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입니까?
3. 많은 비 또는 더운 날씨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누어보자.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온라인모임 5분)

| | | | |
|---|---------------------|---|-------------------------|
| 복 |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지 61장) | 찬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새찬 405장) |
| 음 | 나의 맘 받으소서 (지 58장) | 송 | 십자가를 질수 있나 (새찬 461장) |
| 성 | 아버지 당신의 마음 (지 200장) | 가 |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새찬 283장) |
| 가 | 보소서 주님 (지 152장) | |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새찬 321장) |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온라인모임 30~40분)

지난 한 주간 지구촌공동체성경읽기,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김학유 총장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57-62절**

얼마 전 존 스토틀 목사님 돌아가셨죠. 한국에 잘 알려진 분이요 전 세계의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복음주의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사신 분이요 그 분이 아주 흥미로운 책을 마지막으로 거의 유작처럼 남기신 책이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제자도』입니다. 본래 책 이름은 『The Radicla Disciple』입니다. ‘급진적인 제자’ 그 책에서 존 스토틀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제자는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입니다.

1.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 (58절)

사실 이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홈리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따르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하셨습니다.

2. 하나님 나라 전파의 우선권 (59~60절)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했지만 "먼저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장례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장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추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한 번 2차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를 지내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3. 뒤 돌아보지 말 것 (61~62절)

다른 제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과 헤어져야 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뒤로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역시 급진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심지어 가족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뒤로 미루어야 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 뒤로 밀어야 될 일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테르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서는 재산을 걸었고, 이제는 목숨을 걸었다"

'직업'을 걸었다는 말은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탁월한 운동 선수로 인정을 받았지만 선교적인 도전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결국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찰스 스테르드는 안일한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는 지옥의 한복판에 구원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나는 중국에서 재산을 걸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찰스 스테르드의 기록을 보면 심한 천식으로 인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중국에서 건강을 잃고 돌아왔고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에 가면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다가 이제는 영국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칼판 박사가 붙인 아프리카 선교 포스터를 보고 마음이 다시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테르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가면 어떡겠니?' 의 사들이 가게 되면 2개월 만에 죽는다고 선교 단체들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향합니다.

윌리엄(빌) 보든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Say 'no' to self, 'Yes' to Jesus every time" (나 자신에 대해서는 **노** 라고 말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 라고 말해라)를 일기장에 이것을 항상 적어놓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또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의 뒷면에서 세 구절이 발견됐습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다) 이 말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점검질문

점검질문 *설교의 주요 내용 점검

1. '제자도'의 저자 존 스토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가?
2. 예수님은 어떤 일에 분주하셨는가?
3.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급진적인 제자도의 모습 세 가지는 무엇인가?
4. 백만장자 상속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윌리엄(빌) 보든이 일기에 쓴 좌우명은 무엇인가?

